



사랑과 헌법

담당교수: 이옥한, 조수영

말세날콘서트, 김윤환
: 소유권관철 X 소외미

제1부 사랑할 자유

1. 사랑 사용설명서(상)

Part 01. 나만의 '사랑' 개념 정의하기!



사랑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인격적인 교제, 또는 인격 이외의 가치와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의미하며, 이는 다시 ① 아끼고 위하여 함없이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 ② 남녀 간에 정을 들어 애투이 그리는 일 또는 그러 한 애인, 연애, 연인 ③ 동정하여 너그럽게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 ④ 기독교에서 구원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려 보낸

하나님의 뜻 '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한 감정을 대상으로 정의를 하면, 깊은 감정 또는 다른 사람이나 무엇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거나 성적인 감정이나 로망스, 다른 사람에 대한 강한 성적욕망'으로 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중 《사랑과 헌법》강의에서는 다양한 사랑의 개념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한 감정, 인류에게 보편적인 인격적인 감정에 방점을 두고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Q. 사랑이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몇 분 동안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보라!)
(스노우보드에 올려진 Test1, Test2, Test3 등 참조)

1) 두산백과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7082&cid=40942&categoryId=31531>
2) 아래의 내용에 대한 출처 동아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171-1172면
3)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Delta Reference, p.501

'나에게 사랑이란 무엇(어떠한 의미)일까'를 적으라고 한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랑'에 대해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정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사랑'이라는 선택의 자유를 자신만의 권리로 만끽하며, 한편으로는 사랑에 대해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배제시킬으로써 보다 '사랑' 앞에 정당하게 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다.

♥♥♥ 사랑에 관한 단상(명언모음) ♥♥♥

- 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돈이 사랑을 망칠 것이다(장 자크 루소).
- ② 사랑은 버려처럼 기만해 있는 것이 아니다. 땀처럼 늘 새로 만들어야 한다(어슬러 K. 르).
- ③ 사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에리히 프롬).
- ④ 사랑 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벤자민 프랭클린).
- 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interest)을 갖는 것이며, 존중(respect)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감(responsibility)을 갖는 것이며, 이해하는 것(understand)이고, 마지막으로 주는 것(giving)이다(에리히 프롬).
- ⑥ 누군가를 만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환희에 젖으며 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랑은, 길어 봐야 2년 반을 넘지 못한다(신디 하진).
- ⑦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만은 완벽한 존재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시드니 포이트).
- ⑧ '사랑의 감정'이란 대뇌에서 도파민, 페닐에티아민, 옥시토신의 세 가지 물질이 분비되어 서로 각태일처럼 섞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반응이다(신디 하진).
- ⑨ 서로의 본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남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기에 온 세상은 오해와 사고와 문제로 가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마르크 폰 뮐러하우젠).
- ⑩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마이크 매서).

Part 02. 사랑의 분류 방식: 일방적 사랑 vs. 쌍방적 사랑

'사랑'의 감정은 인류의 역사, 동서고금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인간 회로연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서고금의 여러 세대를 거치며 나와 너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이 정의되고 있다. 특히 나를 포함한 우리의 삶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그 관계 속에서 상처와 고통과 치유와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라고 이해되어 왔기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꿈꾸며 나 스스로를 그러한 관계의 대상에 맞추려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랑'은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나'를 중심으로 사랑을 이해하면 나의 사랑의 감정이 타인에게 전해지기 전의 단계인 '연모(일방적 사랑)'와 나의 감정이 타인과의 교감을 이끌어 내는 '사랑(쌍방적 사랑)'으로 구별을 지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의에 따를 때, 일방적 사랑은 '사랑'의 완전체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반쪽의 사랑이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life cycle(생애주기)'를 살펴보면, <①만남>→<②대상에 대한 연모>

③사랑의 확인(대상과의 교감)→④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⑤익숙함에 따른 권태→⑥불협화음→⑦이별(또는 무관심)의 기승전결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일방적 사랑은 먼저 ③의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연모의 마음을 확인하는 상태인 ③의 단계가 데서야 비로소 쌍방적 사랑으로서 '사랑'의 완전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Part03'에서는 이러한 일방적 사랑 중에서 변이된 사랑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Part 03. 영화 속에 빠진 '사랑'

일방적 사랑의 끝판왕!!! <영화 어톤먼트 (Atonement, 2007)>

(1) 제작: 2007년

(2) 줄거리: 1930년대 영국 부잣집 딸 세실리아와 집사의 아들 로비(명문대 의대생)는 첫 만남에서 호감을 갖게 되고, 서로 감정적인 교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편지로 전하고자 했던 로비는 그녀의 동생이자 로비를 짝사랑하는 브라오니(이야기 속 화자)에게 비밀편지를 전달해 달라 부탁하는데, 언니 세실리아를 좋아하는 로비에게 질투를 느끼고, 브라오니가 로비를 강간범으로 포함하면서 파국을 맞게 된다는 내용. 교도소 수감 대신 전쟁터로 징집되어 간 로비를 간호사가 되어 찾아나선 세실리아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끝내 서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브라오니가 작가가 되어 자신의 언니와 로비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현실과는 달리 소설 속에서는 사랑을 이루게 하여 소설로나마 속죄를 받고자 한다는 스토리

(3) 영화의 A to Z: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 일방적 사랑과 쌍방적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음. 실화를 소설로한 작품을 영화한 것으로, 영화의 반전이 화제가 되기도 함

<생각해 보기> 사랑은 법으로 통제해야 하는가? 보호해야 하는가?

(예: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사건, 헌재 2009.11.26.2008헌바58 등)

Part 04. '사랑' 앞에 당당하기 위한 단계별 코치!4)

《Step 이》 '자신을 사랑하라!'

1.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사랑하라!(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배부인 test참조)
2.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라!(일반적 인격권)
3. 자신감을 보여 주자!(일반적 인격권 & 표현의 자유)
4. 자기 생각을 말하라!(표현의 자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사랑의 상대인 남자의 조건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랑은 앞서 살펴본 일방적 사랑 보다는 쌍방(상호간)의 사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의 상대(남자) 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인식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4) 필 맥그로 지음/서현정 옮김, 『독특하게 사랑하라』, 시공사, 2012, 58면~77면 참조.

Part 05. 헌법 속에 빠진 '사랑'

'사랑'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평등한 지위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통해서로의 감정과 의사를 확인하고 교환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형성·발전·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필요하다. 즉, 헌법상으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 자연인(국민과 외국인 등)만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여 사랑을 선택하고 향유하는 정신적, 물리적 행위라 할 수 있다(기본권의 보유능력, 향유능력). 때문에 모든 사랑의 주체들은 **평등**(헌법 제11조)을 기초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즉, 평등한 사람 간에 사랑이 형성되는 것이 그 본질이기에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기 보다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하늘로부터 평등하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늘리며 스스로가 독립적인 인격체(주체)가 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사랑의 상대방(또 다른 기본권 주체)을 마주할 수 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은(천부인권) 인격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고(헌법 제10조), 자신의 좋아하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향유할 수 있으며,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제2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다.

<사랑과 헌법 Q&A>⁵⁾ 형법, 민법 등 많은 법 분야에서도 사랑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데...왜 많은 법과목 중에서 헌법과 결합했는지?

☞ 헌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과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통치구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입니다. 때문에 헌법은 최고규범성과 기본권보장성, 통치구조성이 규정된, 우리나라의 국민과 모든 국가기관이 반드시 따라야할 최고의 법규범(**최고의 규범성**)으로, 모든 법률이나 명령 등 법규범의 근거이자 기본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 공동체의 이념과 역사, 정치성 등이 준수해야할 규범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더불어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기본권 보장성**)이나 국가기관의 조직과 그 권한의 범위 등이 규정(**통치구조성**)된 규범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나 결혼, 출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문제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허용범위와 그 관련 기본권의 보장 정도를 살펴보고, 관련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그 제도 등에 적용되는 하위 법률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관련성을 띠는 '헌법'에 대한 고찰을 해야만 공동체의 허용범위 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랑에 관한 공동체의 허용 정도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헌법인가'라는 의문이 아닌 '당연히 헌법이어야 한다'라는 답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본 코너는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사랑과 헌법 강의에서 제기된 수강생들의 질문에 답을 담아, 본 강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히지니아우드